

# 11년째 남몰래 이웃돕기 앞장

## “어려운 이웃돕기에 많은 사람 동참 기대”



주인공은 포천시 관인면에서 영업을 택시를 운전하는 박영연(남, 47세·사진)씨. 박씨는 지난 연말에

11년째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박씨는 10년 동안 객지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혹은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4년째 영업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박씨는 많지 않은 수입을 이웃돕기와 봉사활동비로 사용한다 고 한다. 부인이 운영하는 중국집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 박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외에도 경기도 명예환경감시단원을 비롯한 자연보호협의회, 범죄예방 위원, 관인면 의용소방대, 관인면 체육회 등 8개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5년전부터는 장학회를 설립해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매달 5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씨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웃돕기와 봉사활동을 그만 두려고도 생각해 본적도 있다”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있어 버리고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만 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쓰러지는 그날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면서 “어려운 이웃돕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 “신입회원 영입 장학회 활성화”

## 정심장학회 4/4분기 정기회의



지난해 12월30일 정심장학회는 우덕프라자에 위치한 삼삼해물

탕에서 4/4분기 정기회의를 갖고 장학회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심장학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과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급 및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주석 회장은 “회원이 부족해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많은 회원을 영입해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회장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해 왔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포천시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입회원인 우덕프라자 김상복 대표가 이날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 노아의 집 장애아동 한화리조트 나들이

##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장애아 초청 행사



지난해 12월20일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본부장 조용하)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사업 ‘더불어 사는 세상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신북면 ‘노아의 집’ 장애아들을 초청 점심만찬, 슬라이드 함께 보기, 선물 증정,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 등 행사를 개최했다. 중증 장애아 6명을 제외한 44명의 장애아동과 보육·케어담당 교사 및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용하 본부장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외출하도록 유도하여 좀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아의 집 성효진 사무국장은

“기업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니 장애아동들의 정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곳의 아동들은 4세부터 18세의 중증장애 80%, 정신지체 25%, 희귀질환 8명(20%)을 비롯하여 다운증후군, 자폐, 뇌병변(뇌성마비) 등을 함께 앓고 있는 복합장애아동들로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아의 집 아동들은 미혼모자녀 및 무연고 자녀 40명(80%), 수급대상자 가족 중증장애아동 10명(20%)에 직원 30명, 보육·케어담당 18명이 장애아 4.7명당 2명씩 맡아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대한적십자사 포천아마무선봉사회 정기총회

## 모범봉사에 대한 베스트 봉사상 표창할 계획

지난해 12월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포천아마무선봉사회(회장 김수성)는 한화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국제적십자 운동기본원칙낭독, 봉사원서약, 시상,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본회의, 봉사원의 노래제창, 폐회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민의 고난 경감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봉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사회봉사사업부문 사회사 봉사상을 김효환(2203시간 봉사), 최영애(891시간 봉사)씨가 수상했다. 이날 총회는 임원선출도 함께 했는데 참석인원 중 21명의 찬성

과 5명의 반대로 임원전원이 연임됐다. 김수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모범봉사에 대하여 ‘베스트 봉사상’으로 표창하도록 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 제작, 사진기록을 남겨 대대로 다른 봉사원들이 참조하고 귀감으로 삼아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 및 내빈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적십자 봉사원의 노래’를 비롯한 7080가요 5곡을 기타로 연주하기도 했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다양한 차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자’

## 한내울 포럼 창립, 송순석·윤순옥·이희용 공동대표

한내울포럼이 1월5일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소흘읍 송우리에서 개최된 첫 번째 모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자기소개, 주요관심사, 모임의 방향 등에 관해 자유토론후 임원선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 공동대표에는 송순석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회회장, 윤순옥 전 포천의제21협회의회장,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총무에는 이은미씨가 선출됐다. 이날 첫 번째 모임에서 공명수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는 “포천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술과 함께 생애도시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영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는 “포천시는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오늘 모임이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쪽에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임상심리사는 “토박이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포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이 모임이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강구원 미술작가는 “포천반월아트홀 개관이후 아시아미술제, 남부현대미술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모임이 이같은 미술분야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모임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호 포천시아구협회 회장은 “포천시 체육계에 많은 문제점이 누적돼 있으며 폭발 직전이다”고 지적하고 “포천시 예산의 공평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내울 포럼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 강구원(미술작가)▶공명수(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송순석(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회회장)▶안영석(일동중학교 교무부장)▶양문석(초대 시설재소연합회 회장)▶윤우영(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이관우(전 가산농협 조합장)▶이광호(재향군인회 회장)▶이규연(Just Blues 대표)▶이승철(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임상심리실장)▶이은미(서정대학원)▶이희용(포천 연극협회 회장)▶김갑연(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 사무국장)▶장승호(포천시 야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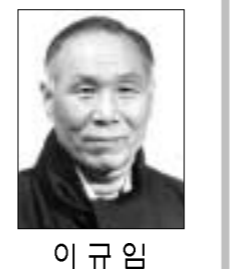


한내울포럼이 1월5일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소흘읍 송우리에서 개최된 첫 번째 모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 웰빙 부사의(不生意)

## 신화(神話)

# ‘상징성’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신화(神話)’ 하면 일반적으로 신(神)들의 이야기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 넘어 파안(彼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승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야기이다. 이 세상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꿈’의 이야기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소망(素望)’의 이야기이다. ‘꿈’은 무의식적(無意識的)인 내면세계(內面世界)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화’도 마찬가지이다. ‘꿈’이 무의식적인 내면세계에서 떠오르듯 ‘신화’도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다. 신화가 우리들의 이야기요, 이 세상 이야기이기도 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

는 아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기는 하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는 더 더욱 아니다. ‘신화’는 현실 세계도 아니고, 현실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꿈’이 그러하듯이 ‘신화’ 또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두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事實)은 아니다. 실제(實體)도 아니다. 그 사실이나 실체를 상징적(象徵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신화의 진정한 의미는 상징(象徵)에 있다.’ ‘심볼(symbol)에 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賦與)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가리킨다. 신화는 개념체계(概念體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천(源泉)에서 솟구치는 것이다.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 너머를 가리킨다. 신화는 논증(論證)의 대상도 아니고, 설명(說明)의 대상도 아니다. 신화는 이해(理解)의 대상일 뿐이다. 신화는 ‘논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명’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화는 ‘상징성(象徵性)’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상징은 실존(實存)이 아니다. 실제(實體)가 아니다. 실존이나 실체를 ‘심볼(symbol)’이라는 ‘어떤 것’으로 대치한 것이다. ‘상징’이란 ‘어떤 것’으로 대치한 것이다. 그래서 실존이나 실체는 하나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은 여럿일 수 있다. 우리 민족을 말할 때 백의민족(白衣民族)이니 곰의 자손(子孫)이니 배탈겨레니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실체는 ‘하나’이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이처럼 ‘여럿’일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단군신화(檀君神話)를 가지고 있다. 단군신화에 우리의 조상은 ‘곰’으로 묘사(描寫)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사실(事實)’로 받아들이려 한다.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혼선(混線)이 생기는 것이다.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곰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하는 것은 실제(實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實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象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곰과 호랑이를 하나의 ‘심볼’로 내세운 것이다.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다. 곰과 호랑이를 내세워 그 ‘성품(性狀)’을 비교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의 성품을 곰의 성품에 비유(比喻)시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이나 우리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곰의 성품’을 내세웠을 뿐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素望)’했을 뿐이다. 우리 조상들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表現)’했을 뿐이다. ‘역사와 문화는 달라도 신화는 하나이다.’ 하나를 지향한다. 물론 표현은 다르다.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저 ‘파안(彼岸)의 세계’이다. 신화와 역사는 이처럼 저 ‘파안’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다.

# Essay

# 꿈속 청사진



윤순옥 포천연극협회 회장으로

하얀눈이 내려 앉은 먼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색색의 빛깔로 핀 꽃도 아니련만 눈이 내리면 마음이 눈송이처럼 동동 떠있는 기분이다. 유년 시절에 눈이 많이 내린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이 따끈해지면 이불 속에 발을 넣고 뒹굴리 좋은지 군고구마 한입 입에 물고 동치미 국물 딱 먹으면 지금도 로션 천하의 건강식품이다. 오빠는 마당 가운데 소쿠리에 버티고 놓은 뒹굴리 참새 잡는다고 소리내어 떠들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웃고 떠들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니까 그랬겠지..... 구박을 받으며 얻어먹은 참새고기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그런 옛 추억이 저 눈발에서 기억을 새롭게 해준다. 지금이야 전자제품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 눈도 나빠지고 따뜻한 감성도 키우지 못하고 손으로 할 일은 기계가 다해

아이 몇 키우는 엄마들 손도 얇아나 고운지 모른다. 좋은 세상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이 그리운 것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추억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저 닭장 같은 것이 다 사람 사는 집이냐?” 연세 드신 시골 할머니의 말씀이다. 살기 편하고 추운지 더운지 계절감각에 둔한 아파트가 싫어진다. 작은 산 언덕배기 아래 진흙집 버티고 커다란 가마솥에 한 아궁이 불을 지펴 화로에 불타고 김치 썰어 돌기를 치고 밥 비벼서 먹는 그런 생활! 경제가 어머니, 지도자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시시비비 없고 다 비워버린 동공 속에 맑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달빛 별빛으로 가득 채우고 바람소리, 새소리에 자장가 삼아 따끈한 아랫목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꿈속 여행을 즐겨보는 동화책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이 철없는 아줌마 때문에

웃어보지 않겠수? 아직 그럴 나이는 아는데 한심한 듯 쳐다보는 그 사람 눈빛이 그래도 내 소원을 모른 체 어떤 할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하기가 어디 가서 마땅한 정착지를 물색하느냐 하는 속제가 막연하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았을 때 찾아뵙아져. 전혀 옛날을 모른 세대들에게 재미있게 알려 주고 체험도 시켜주고 말이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려나? 도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손주들이나 불러야 할 것 같다. 외로움이 짝이면 병이 된다고 하니 동화책 같은 그림을 그려줄 원근도 물색해야 한다. 저 눈과 함께 내 생각이 녹아버리지 않게 꿈속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긴긴 동지선 달 밤 꿈이 아니게.

# 지유기교

#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이홍선 가산연극리

말이라는 것은 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용기를 주기도 한다. 자기의 평소의 생각이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라. 말을 표현할 때 본인의 아름다운 눈을 통해보면 따뜻한 말이 정리되어 나올 것이며 시기와 질투와 자

기만의 편견을 통한 말은 거칠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 거친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보면 지난밤 결례를 물고 잠을 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런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맑은 눈을 가진 바라본다면 평화와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